



16일 오후 육군 5군단사령부에서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전담 교관들이 양성교육 중 분임조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인성이 전투력이다 <5> 인성교육 전담교관 양성교육

퍼질겁니다, 올바른 인성 ‘민들레 흙씨처럼’

“3번 과제 ‘변화와 성장’ 교육은 인성교육을 통해 이렇게 변화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발표자가 제시한 목표에 대해 다른 병사들이 ‘넌 그 걸 할 수 없어’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군3사단 김정은 중사)

“네, 그렇습니다. 또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아는 건데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특성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이 비록 힘들지만 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고 성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합니다.”

(육군교육사령부 리더십센터 교관 강무성 소령)

전담교관 역량 강화 교육,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
신병·전입병 등 단계별 3개 학급으로 나눠 전문성 높여
노하우 공유하고 부족한 점 보완하며 뜻깊은 시간 가져

지난 16일 육군5군단 통신대대 다목적실에서 군단과 예하 부대에서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을 올 한 해 동안 실시할 교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한창이었다. 교육사 리더십센터가 인성함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군단 축선별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전담교관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교육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교육에 참여한 250여 명의 군단 소속 교관을 3개 학급으로 나눴다. 1학급은 1(신병 교육 간 인성교육)·4(분대장 리더십 교육)단계 교육을 담당할 교관, 2학급은 2(전입병 비전설계교육)·5(전역병 미래설계교육)단계 교육을 전담할 교관으로 편성했다. 마지막 3학급은 3단계(자대복무 간 인성교육) 교육을 담당할 대대 전담 교관으로 구성했다. 교육내용이 방대한 만큼 교관 별로 전담할 교육단계를 정하고 해당 단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도록 한 것이다.

교육 방법도 두 단계로 나눠 효율을 극대화했다. 오전에는 전체 교관을 대상으로 올해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의 지침과 과정·과제별

핵심 내용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역병 미래설계교육에 예비군 복무제도 소개교육과 출산 장려정책 교육이 추가되는 등 올해부터 바뀐 교육내용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이어 오후에 3개로 나뉜 학급에서는 교관들이 각자 지난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교육프로그램 연구 내용, 자신만의 노하우 등을 발표해 정보를 교류했다. 또 학급당 한 명씩 배치된 리더십센터 교관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 등을 덧붙여 지도능력 향상을 유도했다.

5군단 유정일(대령·3사 28기) 인사참모는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와 관련, 올해부터 군단급 제대에 인성함양교육 제반사항 통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예하 부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양성된 250여 명의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전문교관들에 의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군단 장병들이 올바르게 군 복무를 이행할 뿐 아니라 전역 후에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김가영/사진=조종원 기자

“좋은 교관을 키우는 것은 프로그램 구성만큼 중요한 일”



“인성교육의 성패는 ‘교관’에 달렸습니다. 리더십센터 교관 5명이 3주에 걸쳐 각 군단을 돌며 순회교육을 하게 된 것도 좋은 교관을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육군5군단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전담교관 양성교육 현장에서 만난 육군교육사령부 리더십센터 이종문(대령·육사44기·사진) 인성/상담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기획한 배경

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병 복무단계별 인성교육을 실시했지만 교관 교육은 2500여 명의 교관을 모아놓고 실시한 한 차례가 전부였다. 하지만 실제 교육을 해보니 좋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 못잡게 교관의 역할이 컸다고. 특히 인성교육의 개념 인식이 중요하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인성교육은 존재영역과 가치영역, 행위영역으로 나뉩니다. 이 중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는 등의 내용은 행위영역의 인성교육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죠. 하지만 육군이 지금 추진하는 인성교육은 존재영역까지 아우릅니다. ‘내가 왜 타인을 존중해야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같이 개인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바로 선 후대인관계가 정립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정의가 발휘될 때 진정한 무형 전투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별 교육을 모르면 왜 인성교육에서 창이나 비전을 다루느냐고 의아해 할 수 있죠.”

이번 순회교육에서 다양한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어 올해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힌 이 과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지휘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어떤 분들은 ‘인성이 하루아침에 변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럴 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인성은 바뀝니다. 지휘관의 관심 속에 진행된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부대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김가영 기자

■ 편집=유현애 기자